

내가 섰 곳,

거룩한 땅

# HERE I STAND Holy GROUND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섰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 3:5**

고대 근동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결국 인간의 욕망을 형상화한 것이며, 자기 주장을 담은 것이기에 사랑할 수도, 요구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며, 사랑이시기에, 그 존재의 방식 또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버리고 비우는 사랑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으시되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이타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 상호내주)’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과 뒤로 물러나심과 자기 부인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이 사람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된다는 것은 결국 태초에 창조된 사람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을 두며 자신의 욕망을 형상화하여 우상을 세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을 닮고, 돈을 예배하면 돈을 닮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고대 근동에 살던 모세를 부르신 장면은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부르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순간이 성전도 아닌, 제단도 아닌 광야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모세는 그 저 양 떼를 따라 걷고 있었을 뿐.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평범한 길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섰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장소를 보고 “거룩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이 광야인지, 거친 돌로 가득한 곳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그 순간,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지치고 고된 일상의 한복판인가요?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는 광야인가요? 혹은 외롭고 고독한 자리일까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그곳이 곧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부른다.”**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었고, 주인의 권위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순종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심으로, 이제부터는 너의 주인이 내가 될 것임을, 네가 내 앞에서 종으로 서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발은 우리를 지켜주는 작은 방패와도 같습니다. 거친 길에서 발을 보호하고, 돌과 흙, 더러움과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던 모든 보호막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곧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신발은 쌓아온 경험일 수도 있고, 고집이나 자존심일 수도 있으며, 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벗어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별거벗은 마음으로 서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격 없다 느낄때 우리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해내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곧 사랑의 사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모세 또한 백성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사랑하여 인내하며 기다려주길 부탁드립니다. 즉, 사랑으로 품고 돌보는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민 11:10-17)

갓난아기는 처음엔 오직 자기 자신만 압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 뒤로 물러나며 모든 신경을 아이에게 쏟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결국 부모가 물러나주었던 자리를 부모를 향한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같습니다. 우리가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물러나 주신 그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게 됩니다. 사랑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 자유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며 다스리시든지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멋진 곳, 대단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학교, 가족, 관계,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마음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선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신을 벗읍시다. 우리의 태도를 바꿉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두려움, 고집, 비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갑시다.

**사랑하는 코스탄 여러분, 거룩은 특별한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선 이 자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하여 거룩히 사용되어지는 코스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